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현숙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Hyensook Jeon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재학생인 32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s 검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입학동기와 교우관계, 학교성적은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나이, 종교는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간에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이었고 그 외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과선택시 적성고려 여부로 4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추후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 선발에 있어 학과에 대한 적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mong 327 nursing students to determine whether professional self-concept or academic self-efficacy has an impact on department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9 till June 12, 2017 and subjected to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version 22.0. The results revealed that purpose of admission to school, relationship with peers, and academic achieve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whereas gender, age, and religion did not. Additional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department satisfaction was professional self-concept, although academic self-efficacy and consideration of aptitude for major were also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apply a variety of programs that can be used to increase professional self-concept to increase department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crease academic self-efficacy among students and consider aptitude when admitting students.

Keywords : academic self-efficac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orresponding Author : Hyensook Jeon(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Tel: +82-10-9515-5925 email: clearhs@hit.ac.kr

Received November 1, 2017

Revised(1st November 22, 2017, 2nd December 5,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교육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있어 직업에 대한 진로인식 및 진로 준비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1]. 통계청의 사회조사 보고에 따르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46.7%)과 부모(46.9%)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2],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 안정성과 적성·흥미 순으로 나타났다[3].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적성이나 학업적 역량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주위의 권유나 취업에 대한 전망,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취업전망을 고려한 학과 선택이 일반적이며, 다른 학과보다 취업이 쉬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비중은 더 많아 질 것이다[5].

이러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학과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학과 교육과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6]. 또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갈등으로 대학생활을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공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전공과 적성의 괴리 현상 속에서 후회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고[7] 대학 졸업 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8].

이러한 사회적 명성이나 인기도, 취업률 등을 고려해 선택한 학생들에게 있어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로 인한 성적저조가 나타나고,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불안이나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를 나타나기도 하며 나아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전공을 바꾸거나 새로이 입시를 치루는 등, 학생이나 가족 모두에게 여러 면에서 새로운 부담이 생기거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한다[9-10].

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학과 부적응은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와 더불어 대학의 당면 과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이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대학교육의 목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능력과 기술, 가치관가 태도의 학습결과로[11],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과 관련된 전공으로 나아가

의사가 높으며 전공만족도도 높다[12]. 이러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결정이나 대학생활 및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목표 달성에 보다 적극적이다[13].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 업무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갖는 느낌과 견해로[14],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은 다양한 전문직이 공존하는 의료현장에서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며[15], 간호사에게 있어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과 간호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6], 간호학생들에게 졸업 전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업적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17].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수행에 대한 조직적이고 도전적인 자신감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크며, 학습동기의 원천으로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요인으로[18], 학업적응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게 한다[19].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에게 있어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20]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연구에 있어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이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수행 성과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 뿐 아니라 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 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자아개념을 통한 자아상 형성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일개 보건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 크기를 계산하였다.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 (1-β).95와 15개의 투입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총 31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50명을 설문대상자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이었으며,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IRB승인(1041490-20170515-HR-006)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진행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중 누락된 항목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27명 자료만을 최종분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문직 자아개념

Arthur[14]에 의해 개발되고 Sohng과 Noh[21]가 번역한 것을 Song[22]이 간호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척도로 긍정적인 문항 27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3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하며 Song[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3]이 개발하여 타당성 검증한 것을 Cha[2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자신감 6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ha[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3.3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25]를 Kim[4]이 간호대학생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Kim[4]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검증을 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 (Tolerance) 0.70~0.99의 범위로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1~1.432의 범위로 기준 10을 넘지 않았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에서 1.961로 나타나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86.9%이며, 종교는 무교가 64.5%이고 기독교가 22%이었다. 대

상자가 원하는 취업처는 병원이 85.3%이었으며 병원이 외의 취업처를 원하는 대상자가 14.7%이었다.

간호학과와 입학 동기는 ‘취업률고려’ 45.3%, ‘적성고려’ 27.5%이었으며, 등록금 조달은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자가 56.6%이었으며, ‘부모님과 본인’이 12.5%, ‘본인’이라고 응답한 자가 12.2%이었다. 교우관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가 50.5%이며 ‘좋은 편’이 46.8%이었고, 성적에 있어서는 ‘3.0~3.9’가 63.3%이었고 ‘3.0미만’과 ‘4.0이상’은 각각 18.9%, 17.7%이었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는 <Table 1> 과 같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3.02±.31점 이었으며, 취업분야($t=2.413, p=.016$), 학교입학동기($t=-3.596, p<.001$), 교우관계($F=10.489, p<.001$), 학교성적($F=9.57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 사후검정 한 결과,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성적에 있어서는 ‘2.0 미만’인 군이 ‘2.0이상’인 군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았으며, ‘2.0~2.9’인 대상자도 ‘3.0 이상’인 대상자 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3±.45점으로, 학교입학동기($t=-3.196, p=.002$), 교우관계($F=18.075, p<.001$), 학교성적($F=16.613, p<.001$)

Table 1.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7)

Variables	Categories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n	%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43	13.1	3.02 (.43)	-.025 (.980)	3.22 (.42)	1.370 (.172)	3.74 (.72)	-1.778 (.076)
	Female	284	86.9	3.02 (.28)		3.11 (.45)		3.90 (.55)	
Age (years)	≤ 22	238	72.8	3.00 (.32)	-1.35 (.179)	3.10 (.45)	-1.66 (.107)	3.89 (.60)	.520 (.603)
	≥ 23	89	27.2	3.05 (.27)		3.19 (.44)		3.85 (.53)	
Grade	Freshman	27	8.3	2.99 (.49)	.980 (.402)	3.08 (.41)	.765 (.514)	3.89 (.75)	4.794 (.003)
	Sophomore	113	34.6	3.06 (.29)		3.15 (.51)		4.02 (.60)	
	Junior	92	28.1	2.99 (.28)		3.08 (.47)		3.71 (.56)	
	Senior	95	29.0	3.00 (.29)		3.16 (.36)		3.88 (.49)	
Religion	Protestant	72	22.0	3.01 (.25)	.554 (.696)	3.18 (.46)	1.114 (.350)	3.92 (.54)	1.266 (.283)
	Catholic	25	7.6	2.94 (.53)		3.11 (.46)		3.64 (.78)	
	Buddhist	15	4.6	3.00 (.26)		2.99 (.51)		3.96 (.54)	
	None	211	64.5	3.03 (.30)		3.13 (.44)		3.89 (.56)	
	Others	4	1.2	2.94 (.21)		2.83 (.44)		3.76 (.80)	
Employment field	General Hospital or Clinic	279	85.3	3.05 (.30)	2.413 (.016)	3.14 (.42)	.643 (.521)	3.90 (.57)	1.462 (.145)
	No General Hospital & clinic	48	14.7	2.83 (.27)		3.03 (.39)		3.75 (.61)	
Motivation for admission	Grades in high school ^c	33	10.1	3.01 (.30)	4.627 (.003)	3.09 (.39)	3.397 (.018)	3.71 (.51)	8.809 (<.001)
	Suitable to aptitude and interest ^b	90	27.5	3.12 (.29)		3.25 (.49)		4.13 (.55)	
	Getting a job easily ^c	148	45.3	2.97 (.31)		3.07 (.42)		3.76 (.57)	
	Recommendation or Others ^d	56	17.1	3.00 (.29)		3.12 (.45)		3.90 (.60)	
Consideration of aptitude for majors	No	237	72.5	2.98 (.32)	-3.596 (<.001)	3.08 (.41)	-3.196 (.002)	3.77 (.56)	-5.092 (<.001)
	Yes	90	27.5	3.12 (.29)		3.25 (.45)		4.13 (.55)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ied ^a	153	46.8	3.09 (.27)	10.489 (<.001)	3.28 (.46)	18.075 (<.001)	4.04 (.51)	11.518 (<.001)
	Moderate ^b	165	50.5	2.94 (.32)		2.99 (.41)		3.75 (.61)	
	Dissatisfied ^c	9	2.7	3.05 (.38)		2.99 (.24)		3.59 (.31)	
Academic achievement	2.0 < ^a	4	1.2	2.43(1.06)	9.576 (<.001)	2.84 (.38)	16.613 (<.001)	3.21 (.75)	7.351 (<.001)
	2.0 ~ 2.9 ^b	58	17.7	2.91 (.30)		2.82 (.41)		3.67 (.60)	
	3.0 ~ 3.9 ^c	207	63.3	3.04 (.27)		3.16 (.41)		3.90 (.50)	
	4.0 ≤ ^d	58	17.7	3.09 (.28)		3.34 (.45)		4.09 (.62)	
		327	100	3.02 (.31)		3.13 (.45)		3.88 (.58)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 사후검정 한 결과,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성적이 ‘3.0~3.9’인 대상자와 ‘4.0 이상’인 대상자에서 ‘2.0~2.9’인 대상자 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8±.58점으로 학년(F=4.794, p=.003), 학과입학동기(t=-5.092, p<.001), 교우관계(F=11.518, p<.001), 학교성적(F=7.35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 사후검정 한 결과,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았으며, 성적이 ‘4.0이상’인 대상자가 ‘3.0 미만’인 대상자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학과만족도는 전문직 자아개념(r=.613, p<.0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427, p<.001)에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440, p<.001)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N=327)

	Professional Self-Concept r(p)	Academic Self-Efficacy r(p)	Department Satisfaction r(p)
Professional Self-Concept	1		
Academic Self-Efficacy	.440(<.001)	1	
Department Satisfaction	.613(<.001)	.427(<.001)	1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Department Satisfaction (N=327)

	B	SE	β	t	p	R ²	adj R ²	F(p)
Constant	6.016	5.448		1.104	.270	.454	.443	41.921(<.001)
Professional Self-Concept	.558	.054	.504	10.431	<.001			
Academic Self-Efficacy	.1515	.052	.149	2.9257	.004			
Consideration of aptitude for majors	3.081	1.009	.134	3.054	.002			
Relationship with friends	-1.479	.862	-.078	-1.715	.087			
Academic achievement	.694	.760	.042	.912	.362			

3.4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이중 명목적도인 학과입학 동기는 가변수로 변환한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0.70~0.99의 범위로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1~1.432의 범위로 기준 10을 넘지 않았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에서 1.961로 나타나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과만족도 모형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41.921, p<.001)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에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β=.504, t=10.431,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적성고려 여부가 영향력이 전체 44.3%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점수는 4점 만점에 3.02점으로 Song[22]의 연구결과 3.17점과 Jeon[15]의 연구결과 3.27점보다 낮았으나 Lee와 Ha[25]의 연구결과 2.9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 취업분야, 학과입학동기, 교

우관계, 학교성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있어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 [15, 22, 26]와 같으나 학년이나 연령, 취업분야 등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호학을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선택한 경우 간호직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적 느낌과 경험을 가지게 되어 보다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Jeon[1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과 선택에 있어 적성 고려는 다시 한번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되어지며, 무엇보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간호직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이 요구되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성을 고려한 입학은 직업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학년, 교우관계와 학교성적, 취업분야 등은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13점으로 학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1학년 대상 2.79점이나[20], 2학년 대상 3.08점[27]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간호대학생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28]의 연구결과 3.21점보다는 낮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특성상 교양과목과 전공기초 과목을 새롭게 접하는 1학년과 임상 실습을 처음하는 3학년에게서 다른 학년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학습이 주는 부담감과 광범위한 대학교육 적응에 따른 자신감 결여로 개설과목의 학업부담 과중 및 과제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저하로 보인다. 이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학과 적응도에 차이가 있는 것[11]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간호학의 학업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과 성과 중심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교수-학생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학과 입학에서 적성을 고려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와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에게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과 교우관계, 입학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Kim[20], Kim과 Kim[27]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나 성별, 종교, 경제 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과 Kim[29]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과만족도는 학년, 입학동기, 적성고려 여부, 교우관계, 학교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8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1-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ak과 Hwang[30]의 연구와 같은 점수이며, 간호대학생 1-4학년 대상의 Jang[31]의 연구 3.89점과 유사한 결과이고,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와 Kim[5]의 3.76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이처럼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학년별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실습전후에 변화할 수 있고, 학과 불만족이 추후 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가 되고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 시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을 높여 진로의식형성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32]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과 선택에 있어 적성을 고려한 학생이 성적이나 취업을 고려하여 입학한 학생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았고, 교우관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군이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가 맞아 온 군이 취업률을 고려해서 선택하거나 선생님 권유로 선택한 군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고, 교우관계가 좋은 편인 군이 보통인 군과 어려운 군보다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32]와 일치하며 적성이나 고교성적을 고려하여 입학한 군과 교우관계가 좋은 편인 군에서 학과만족도가 높았다는 Kim[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대학의 학과선택에 있어 학생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며, 학과 신입생들에게도 학과의 흥미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순상관관계가 있고, 학업적 효능감은 학과만족도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전공만족도

가 높은 학생이 전문직관이 높다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 [34]의 연구결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Kim[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한다는 Kim[33]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정서적 자극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정보를 재구조하여 자신이 선택한 해결방안을 실행한다[35]고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고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적성 고려 여부가 44.3%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학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간호전문직관이라고 보고한 Cho와 Kim[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 Choi[36]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관심과 간호 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 전공만족도가 매개하며[37],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Kim[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 및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지역 일개 보건대학교 간호대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평균은 4점 만점에 3.02점이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13점

이었고, 학과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3.88점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입학동기, 교우관계, 학교성적, 취업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취업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적성이 맞아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에게서 높았으며, 교우관계와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에게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만족도는 학년, 입학동기, 교우관계, 학교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입학시 취업을 고려한 대상자보다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대상자에게서, 그리고 교우관계와 학교성적이 좋은 대상자에게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과만족도 간에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이었고 그 외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적성고려 여부로 4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직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학과적응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입생 때부터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관을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과 선택에 있어 적성을 고려한 학생들에게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과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학과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적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과 신입생의 선발에 있어 적성을 고려한 선발방법 및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Y. Park, J. K. Kim, T. Y. Le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Society, vol. 11, no. 2, pp. 376-384, 2011.
- [2] Statics Korea [Internet]. 2014 Social index survey health, ducation, safety, family, environment) [cited 2014

- November 2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23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3] Statics Korea[Internet]. 2013 Social index survey (welfare, social participation, culture and leisure, income and spending, work) [cited 2013 December 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1048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4]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3.
- [5] J. A. Ch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87-59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 [6] E. Y. Yu, Y. J. Yang,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2, pp. 557-568, 2013.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12.557H.J>
- [7] M. J. Park, "The Influence of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n Course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8.
- [8]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6, pp. 3902-3910,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6.3902>
- [9] M. Y.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 al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5.
- [10] H. J. Kim,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well-being, Self-identity and Family function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2, pp. 376-386,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2.376>
- [11] S. H. Jung, S. K. Choi, S. T. Kim, "An Analysis on Scholastic Achievement, Major Adaptability and Satisfaction of New Students from Academic High Schools & Vocational High Schools : A Department of Cosmetology Targeted Study",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 11, no. 2, pp. 77-85, 2010.
- [12] W. S. Cho,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2008.
- [13] M. T. Tessema, K. Ready, W. W. Yu,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2, no. 2, pp. 34-44, 2012.
- [14] Arthur, D,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 15, pp. 328-335, 1995.
- [15] M. K. Jeon,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19-129,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19>
- [16] Hallin, K, Danielson, E.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1, no. 1, pp. 62-70, 2007.
- [17] Bandura, 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18] Livsey, K. R. "Clinical Faculty Influences on Student Caring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 Caring, vol. 13, no. 2, pp. 53-59, 2009.
- [19] J. H. Kwon, K. H. Kim,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Focusing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regulated learning", Forum for youth culture, vol. 35, no. 9, pp. 31-57, 201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287466>
- [20] Y. H. Kim,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104-11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1.104>
- [21] K. A.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4-106, 1996.
http://www.kan.or.kr/kor/shop_sun/files/memoir_img/199601/94.pdf
- [22] H. R. Song,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of Korea, 2010.
- [23]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 [24] J. A. Cha,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National University, 2017.
- [25] L. A. Braskamp, S. L. Wise, D. 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pp. 494-498, 1979.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71.4.494>
- [26] M. S. Lee, Y. S. Ha,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738-8744,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738>
- [27] Y. H. Kim, Y. A.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589-598,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9.589>

- [28] S.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 [29] H. H. Park, S. Y. Kim, “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0, no. 6, 2016.
DOI: <http://dx.doi.org/10.21184/jkeia.2016.12.10.6.369>
- [30] H. W. Kwak, S. W. Hwang,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239-249, 2017.
DOI: <http://doi.org/10.14400/JDC.2017.15.2.239>
- [31]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5.
- [33] M. S.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7 no. 2, 159-167,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59>
- [34] S. G. Kim, Y. K. Koo, M. A. Jeo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tents, vol. 12 no. 8, pp. 248-255,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248>
- [35] D. H. Kim, “The effect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National University, 2017.
- [36]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68-77,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6.68>
- [37]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vol. 25 no. 5, 559-566,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3.25.5.559>

전 현 숙(Hyensook Jeon)

[정회원]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간호학, 간호교육